

## 인천 - 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김경화\*

### 〈차 례〉

1. 머리말
2. 고고자료를 통해 본 인천 - 김포지역의 정치세력  
- 墳丘墓를 중심으로 -
3. 문헌자료를 통해 본 인천 - 김포지역의 정치세력
4. 인천 - 김포지역 馬韓 諸國의 특성
5. 마무리

### [국문초록]

최근 인천 - 김포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분구묘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 일정 규모의 세력을 가진 지배 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분구묘가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역은 인천 연희동 유적, 김포 운양동, 양촌 유적 등이다. 출토유물을 토대로 본 중심연대가 대략 3세기 전후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삼국지』 한조에 등장하는 마한 諸國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 한조에는 56개의 소국이 등장한다. 문헌사적 연구성과에 따르면 인천 - 김포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휴모탁국’, ‘신분고국’ 및 ‘속로불사국’ 등이다. 이들은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 중국 군현과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해상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또한 3세기 낙랑군과 벌인 기리영전투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 - 김포지역의 정치세력은 “해상”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마한의 지역연맹체적 특성을 가진다. 특히 연희동지역은 외부 세력이 한반도 내륙에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중사하려는 서해 연안의 세력이라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포 운양동 유적에는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계토기편 등 낙랑계유물과 함께 상당수의 철제무기류가 발견된다. 이는 기리영전투 등의 분쟁에 이 지역 세력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인천 - 김포지역은 군사적 동맹으로 맺어진 지역연맹체로 중국 군현과의 경제적 교섭은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함께 행동하였고, 이 때문에 『삼국지』에서 국명을

\* 인하대 강사

열거할 때, 나란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인천-김포지역, 분구묘, 마한, 『삼국지』 한조

## 1. 머리말

한국 고대사는 사료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마한의 경우 중국 사서 및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짧은 기록에 의존해야 하기에 연구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기 전, 마한은 한반도 이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집단이었다. 따라서 고대사에서 마한을 언급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진전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三國志』 東夷傳 ‘韓條’에 마한과 관련된 기록이 단독으로 입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국지』 한조에는 마한의 구체적인 실상, 이를테면 위치, 인구, 통치형태, 사회구성, 경제, 습속,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기록되어 있어, 마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sup>1)</sup>

지금까지 『삼국지』 한조의 기록을 토대로 마한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한의 위치, 성립시기, 성격, 辰國이나 백제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해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천지역과 마한과의 관련성이다.

마한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분포하던 여러 정치집단이 상호 이해관계에

1) 『後漢書』, 『晉書』 등에 마한과 관련된 기사가 단독으로 입전되어 있지만, 대부분 『삼국지』의 내용을 그대로 傳寫한 기록들이다. 이에 본고는 『삼국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외의 사서는 필요에 따라 보충하겠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에도 마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다만 초기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당시 백제와의 관계 속에 등장하는 마한은 주로 목지국 중심의 충청 이남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을 다루는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삼국사기』도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도록 하겠다.

따라 연맹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지는 목지국이 자리 잡은 충청 이남 지역으로 추정된다.<sup>2)</sup> 이 때문에 충청-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연맹체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반도 중서부지역 특히 인천지역의 마한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사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인천은 고대사 연구에 있어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이는 삼국시대의 주축이 되는 백제의 성립에 비류의 미추홀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실 백제의 건국전승에 비류가 온조의 형으로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미추홀에 온조의 伯濟國에 상응하는 모종의 정치집단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미추홀은 인천의 옛 이름이다. 이들은 온조의 백제국과 마찬가지로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였고, 어느 시기에 이르러 백제에 통합되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관련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어려웠다. 다만 일찍이 이병도, 천관우 등이 『三國志』韓條에 열거된 마한 諸國의 위치를 비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을 주목한 바 있다. 이병도는 마한 54개국의 위치 문제를 논하면서 ‘大石索國’, ‘小石索國’을 서해안의 섬으로 ‘優休牟涿國’은 부평 등으로 비정했다.<sup>3)</sup> 또한 천관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大石索國’, ‘小石索國’을 각각 강화도, 교동도로 비정하고, ‘目支國’을 인천으로 보았다. 다만 ‘優休牟涿國’은 이병도와 다르게 춘천으로 비정하였다. 이후 인천지역과 관련된 마한 제국의 위치비정은 대체로 천관우의 주장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고대 지명의 音相似를 통한 위치비정이라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굴조사과정에서 마한의 대표 묘제로 알려진 墳丘墓가 인천

2)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직산설(이병도, 「目支國의 위치와 그 地理」, 『한국고대사연구』, 1976, 242~248쪽 등)과 익산설(김정배,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問題」, 『한국사연구』 4, 1976; 「目支國小攷」, 『千寬宇先生選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이후 그 견해를 수정하여 예산 일대로 재비정하였다) 등이 대표적이는데, 최근에는 익산설이 지배적이다.

3) 이병도,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진단학보』 3, 1935, 34~53쪽.

-김포지역<sup>4)</sup>에 다수 분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마한지역에는 다양한 묘제가 병존하는데, 이들은 묘제의 분포양상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권, 서울 중심의 단순 목관(곽)묘권, 용인-오산 이남에서 충청 서부의 주구토광묘권 그리고 인천-충남 해안가로부터 호남 서부로 이루어지는 분구묘권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sup>5)</sup>

이 같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문헌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즉 문헌사 연구에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결합하여 마한과 인천지역의 관련성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고학 및 문헌사에서 제기된 일련의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인천지역에 과연 일정 규모의 세력을 갖는 정치집단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이 마한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고고자료를 통해 본 인천-김포지역의 정치세력 -墳丘墓를 중심으로-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발굴조사에서 인천지역에 다수의 분구묘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분구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매장주체부를 담은 분구를 먼저 조성한 뒤, 그 안에 매장시설을 축조하여 넣은’ 것<sup>6)</sup>으로 마한의 무덤양식으로 분류된다. 분구묘는 축조재료나 방법, 분포범위에 따라 성토분구묘, 적석분구묘, 층석분구묘로 구분할 수 있는데,<sup>7)</sup> 인천-김포지역에서

4) 발굴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이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경기도 부천군의 서곶면과 김포군의 검단면으로 구성되었다가 1995년 인천광역시의 승격과 함께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인천뿐 아니라 김포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5) 권오영,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2009, 40쪽.

6) 이성주, 『墳丘墓의 認識』, 『한국상고사학보』 32, 2000, 79쪽.  
한편 임영진은 매장을 한 뒤 분구를 축조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매장주체부가 지상의 분구에 위치하고 추가장이 이루어지면서 분구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되기도 하는 무덤’이라고 분구묘를 규정하였다(임영진, 『마한 분구묘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마한 분구묘 비교 연구』, 2015, 24쪽).

발견되는 분구묘는 대부분 성토분구묘에 속한다. 분구묘의 출현은 이 지역에 일정 규모의 세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sup>8)</sup>

2003년 인천 동양동 택지개발 지구에서 방형의 주구를 갖춘 분구묘가 발견<sup>9)</sup>된 이후 현재 인천, 김포 등지에서 발견된 분구묘 유적은 약 13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후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현 행정구역상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분구묘 유적지로는 운서동유적, 중산동유적, 연희동유적, 구월동유적, 동양동유적, 영종도 늘들유적, 검단당하동 유적 등이 있다. 또한 그 범위를 김포지역으로 확대해 볼 경우 양곡유적, 운양동유적, 양촌유적, 학운리유적, 구래동유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인천-김포지역에는 160여기가 넘는 분구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인천의 연희동유적,<sup>10)</sup> 김포의 양촌, 운양동유적의 발견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sup>11)</sup>

인천 연희동유적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분구묘, 토광묘, 옹관묘, 구상유구 등이 발견되는데, 그 중 분구묘는 58기가 확인되며, 유적 전면

7) 김승욱은 분구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성토분구묘는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마한계 묘제로 주구를 돌리고, 주구에서 굴착 한 흙을 이용하여 분구를 먼저 조성한 후 매장시설을 안치하며, 多葬의 전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묘제이다. 다음으로 적석분구묘는 입진강, 북한강 남한강 일대에 분포하며, 강변의 자연사구 위에 복수의 수혈식석곽이 축조되며, 매장 중심부에 천석이나 할석을 적석한다. 마지막으로 증석분구묘는 서울과 천안 일대에 발견되며, 주구가 없는 대신 고분 상부에 증석시설이 확인되며, 다장의 형태를 띤다(김승욱,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 2011, 89~92쪽).

8) 이성주, 앞의 논문, 2000, 102쪽.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동양동유적』, 2007.

10) 차윤환은 인천지역에서 분구묘가 발견된 예는 인천연희동, 중산동, 운서동 등이 있는데, 無關結合形環頭大刀와 水晶切子玉이 출토된 인천 운서동유적에서 3세기 전반 이후 인천 연희동유적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였다고 보았다(차윤환, 『原三國後期~百濟初期 漢江 中, 下流域의 墓制와 地域集團 研究』,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1쪽).

11) 인천지역의 경우 동양동 1기, 당하동 7기, 연희동 56기, 운서동 4기 등의 분구묘가 관찰되며, 김포 지역은 양촌 32기, 운양동 32기를 비롯하여 양곡 4기, 학운리 1기(단 연구자에 따라 이를 주구토광묘로 파악하기도 함) 등에서 분구묘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김기욱, 『한강 하류역 마한 분묘군 일고찰』, 『경남연구』 7, 2012, 44~52쪽; 지혜, 『김포, 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시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1~24쪽 참고).

에 걸쳐 분포하는 양상이다. 연회동유적의 지형적 특징은 내륙에서 해안으로 뻗어나가는 2개의 능선상에 위치하며, 능선사이 곡간부는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능선이 마주 보는 양상이다.<sup>12)</sup> 지금까지 발견된 분구묘 유적지 중 가장 대규모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는 사례가 적어 단정할 수 없으나 대개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형태는 방형이다. 출토유물은 매장주체부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 다른 유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대체로 환두도, 철모가 기본세트이며 여기에 철기와 토기가 각 1점씩 공반한다.<sup>13)</sup> 연회동유적은 정상부에는 대형분구묘가 조성되며,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중복양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보여 위계에 따른 입지 양상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심연대는 3세기 전반~5세기 전반이다.<sup>14)</sup>

김포 운양 및 양촌지역에서도 각각 30여기의 분구묘가 밀집 분포된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운양동유적의 경우 한강하류에서 약 1.2km 떨어져 한강과 나란한 방향으로 뻗은 모담산 구릉(해발 73미터)의 정상 및 사면부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단관식철모(2세기 중반)를 비롯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철기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낙랑계백색옹, 양이부호, 북방계금제이식, 철제장검, 구슬 등 외래계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15)</sup> 운양동유적은 정상부를 기준으로 2개의 군집이 발견되며 밀집도는 사면부로 갈수록 벌어진다. 1군은 중대형의 규모가 비교적 큰 분구묘로 구성되며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2군은 소형분구묘가 주를 이루며 유물 수량도 적다. 이에 지역 내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1군을 중심으로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지세력의 영향력이 쇠퇴하여 분구묘에 대한 위상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심연대는 2세기 후반~4세기 후반이다.<sup>16)</sup>

양촌유적은 한강에서 약 10km 떨어진 구릉(해발 25~27m)에 입지하며,

12) 서경문화재단연구원, 『인천 연회동 유적』, 2013.

13) 김기욱, 앞의 논문, 2012, 53쪽.

14) 지혜, 앞의 논문, 2019, 28쪽.

15) 한강문화재단연구원, 『김포 운양동유적』, 2013; 김기욱, 앞의 논문, 2012, 47쪽.

16) 지혜, 앞의 논문, 2019, 27쪽.

매장주체부의 규모가 크고 환두대도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뿐만아니라 철모, 철촉 등 철기류와 심발형토기, 소형도질단경호, 낙랑계백색옹, 직구단경호 및 금박유리옥 등이 출토되는데, 특히 낙랑계백색옹의 경우 서북한지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sup>17)</sup> 양촌유적 역시 3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그룹 내에서도 규모와 유물에 따른 위계 차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계급 차이가 있는 피장자들이 다른 그룹과 멀리 떨어진 분리된 공간에 묘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중심연대는 3세기 전반~5세기이다.

종합해보면 인천-김포지역의 분구묘는 저평한 구릉상에 입지하며, 묘역의 조성시기는 2세기 중반에서 5세기까지 이어진다.<sup>19)</sup>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분구묘는 대규모의 밀집분포가 나타나고, 위계에 따른 입지 조성 및 유물이 부장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에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한 모종의 정치세력이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구의 형태와 출토유물의 양상 등으로 보아 3세기 전반 인천과 김포 두 지역 간에는 축조방식, 매장주체부의 구조, 유물 부장양상 등이 유사한 분구묘 전통이 존재<sup>20)</sup>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고고자료는 비슷한 시기 인천-김포 지역에서 발견된 四柱式住居地이다. 사주식주거지는 네 개의 벽면에 기둥구멍이 있는 방형 주거지로, 지금까지 대체로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분포하는 마한

17) 고려문화재연구원, 『김포 양촌 유적』, 2013; 김기욱, 앞의 논문, 2012, 44쪽.

18) 지혜, 앞의 논문, 2019, 27쪽.

19) 5세기 대로 편년되는 분구묘가 존재하지만, 그 규모나 수량면에서 앞서 3세기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즉 이 지역의 정치세력은 3세기 전후반에 가장 성장하였고, 이후 그 세력이 줄어들어 5세기에는 백제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 김기욱,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마한 분구묘 비교 검토』, 2015, 57~59쪽.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의 분구의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3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입지가 정상부와 가까운 사면으로 확장되며, 분구의 형태도 약간씩 변화된다. 매장주체부는 목관 혹은 목곽묘로, 목관의 규모에 비해 묘광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토기는 매장주체부의 목관외부에 호 1겹 정도가 부장되며, 주구 내에는 대응 혹은 단경호를 파쇄하여 매납한다. 또한 토기에 비해 철기류의 부장이 많은데, 특히 환두대도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21) 인천-김포지역에는 분구묘 외에 주구묘, 토광묘, 옹관묘 등의 묘제도 발견된다. 다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이 지역의 중심묘제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앞으로의 발굴 결과에 따라 그 수가 많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로서는 분구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계 주거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사주식주거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분포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천-김포지역에서 발견된 사주식주거지는 인천 구월동 유적 5기, 중산동 유적 1기, 운남동 1기, 김포 양촌 유적 12기, 운양동 유적 1기 등이 보고되었다. 대개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에 규모는 운남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형(7~35㎡)에 해당한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대옹, 완, 시루, 광구단경호 등이 발견되었으며, 인천 운남동의 경우 다량의 철기가 발견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편년을 추구해 본 결과 대략 2세기 전반~4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sup>22)</sup>

이를 볼 때, 사주식주거지의 편년 및 분포양상이 앞서 언급한 분구묘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인천-김포 지역에 분구묘와 사주식주거지를 사용한 유력 정치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적의 중심연대가 대략 3세기 전후반임을 볼 때, 이들 세력은 『삼국지』 한조에 보인 마한 제국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3. 문헌자료를 통해 본 인천-김포지역의 정치세력

앞 장에서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인천-김포지역에 분구묘를 사용한 유력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정치세력은 어떤 존재인가. 본 장에서는 문헌사에서 이와 관련된 존재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사에서 마한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사료는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의 기록이다.

22) 신은정,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地 研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3~54쪽.

(가) [馬韓의 諸國<sup>23</sup>으로는] (1)爰襄國·(2)牟水國·(3)桑外國·(4)小石索國·(5)大石索國·(6)優休牟涿國·(7)臣漬沽國·(8)伯濟國·(9)速盧不斯國·(10)日華國·(11)古誕者國·(12)古離國·(13)怒藍國·(14)月支國·(15)咨離牟盧國·(16)素謂乾國·(17)古爰國·(18)莫盧國·(19)卑離國·(20)占離卑國·(21)臣鬯國·(22)支侵國·(23)狗盧國·(24)卑彌國·(25)監奚卑離國·(26)古蒲國·(27)致利鞠國·(28)冉駱國·(29)兒林國·(30)駟盧國·(31)內卑離國·(32)感奚國·(33)萬盧國·(34)辟卑離國·(35)白斯烏旦國·(36)一離國·(37)不彌國·(38)支半國·(39)狗素國·(40)捷盧國·(41)牟盧卑離國·(42)臣蘇塗國·(43)莫盧國·(44)占臘國·(45)臨素半國·(46)臣雲新國·(47)如來卑離國·(48)楚山塗卑離國·(49)一難國·(50)狗奚國·(51)不雲國·(52)不斯漬邪國·(53)爰池國·(54)乾馬國·(55)楚離國 등 모두 50여國이 있다. 큰 나라는 萬餘家이고,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總 10餘萬戶이다(『三國志』 魏志 卷30 東夷傳).

『삼국지』는 3세기 西晉의 진수가 私撰한 역사서이다. 기록에는 마한은 50여개<sup>24</sup>의 대·소국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국명을 나열하고 있다.<sup>25</sup> 마한

23) 『삼국지』에 기록된 ‘~國’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마한 ‘소국’ 등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라고 하여 인구수에 따라 대국과 소국을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마한 ‘~國’을 ‘소국’이라고 일괄적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마한의 여러 국이라는 의미로 이하 마한의 ‘~國’을 마한 ‘諸國’이라 표현하도록 하겠다. 단 ‘소국연맹 단계’ 등과 같이 학계에서 공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한해서는 ‘소국’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24) 『後漢書』에서는 “馬韓在西 有五十四國”이라 하였는데, 이는 18번째와 43번째의 “莫盧國”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천관우는 莫盧國의 “同名異地”의 가능성을 제기하여 북쪽의 것은 충남 예산 덕산, 남쪽 것은 전남 영광에 비정하였다. 다만 18번째 莫盧國과 19번째 卑離國을 ‘莫盧卑離國’으로 보아 결국 54국이 맞을 것이라 추론하였다(천관우,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79, 201쪽). 한편 윤용구는 『삼국지』를 대본으로 삼은 『한원』에서 마한 제국이 56국이라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총수는 『삼국지』에 열거된 55개국에 마한에 소속된 胡胡國을 포함한 56국일 것이라고 보았다(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지역과 역사』 45, 2019, 9~10쪽). 실제로 『翰苑』 蕃夷部 三韓 小引 魏略에도 “……凡有小國五十六”이라 하였고, 『晉書』에도 “馬韓……凡有五十六所”라 하였다. 필자 또한 가장 오래된 자료인 『한원』의 56개국설을 지지한다.

25) 이 외에도 『翰苑』 百濟傳에 마한 諸國의 명칭이 등장한다. 『翰苑』 百濟傳 小引 魏志에는 마한 52개국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馬韓在西……有爰襄國, 牟襄水國, 桑水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乾馬國, 楚離國 凡五十餘國, 小國數千家, 又島上有州胡國也”라 하였다. 『삼국지』와 비교해봤을 때, “牟水國(『삼국지』)를 “牟襄水國(『한원』)라 하여 명칭을 다르게 하였거나, 또는 『삼국지』에 있는 “友半國, 狗素國”이 『한원』에는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한원』 백제전 첫머리

諸國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이병도, 천관우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학자들 간의 별다른 이견 없이 확실히 오늘날의 지명으로 비정되는 곳도 있고, 막연하게 추정하거나 혹은 그마저도 불가능한 곳도 있다. 사실 제한된 사료를 통해 고대 지명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지금까지도 천관우 등의 견해가 많은 학자에 의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다.

『삼국지』에 열거된 마한 諸國 중 인천지역과 관련해서 이병도는 4번째의 ‘小石索國’과 5번째 ‘大石索國’을 ‘서해 도서’ 지역일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는 『위서』 백제전에 수록된 백제왕의 표문에 “西界小石山北國海中……”라 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sup>26)</sup>, 다만 더 이상의 자세한 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6번째 ‘優休牽涿國’는 역대 지리서에서 유사 음운을 찾은 결과 고구려의 ‘主夫吐郡’인 부평<sup>27)</sup>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28)</sup>

다음으로 천관우는 『삼국지』의 찬자가 마한 諸國을 서술할 때, 이른바 ‘북에서 남으로의 방향’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한지역의 역대 중요지점 이를테면 8번째 ‘百濟國(서울 강남)’, 14번째 ‘目支國(인천)’ 등을 기준으로 그 주변 국명에 유사 지명어를 찾아 위치를 비정했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18년조에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중 서해 중에 있는 섬으로 ‘소석산’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를 ‘소석색국’으로 보았다. 이에 소석색국은 8번째 백제국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기에 한강 이북의 섬 중에서 ‘국’의 명칭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섬에서 찾아야 하며, 소석색국과 대석색국이 서로 병립하기에 소석색국은 강화 북쪽 교동도, 대석색국은 강화도로 각각 비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29)</sup> 또한 그는 목지국을 미추홀,

에는 “馬韃有羊皮國，狗素國”이라 하여 누락 한 국명을 다시금 적어 놓았다(윤용구, 앞의 논문, 2019, 13~14쪽).

26) 이는 일찍이 한진서의 『해동역사』 지리지에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한진서는 이를 충청남도 海濱으로 보았다.

27) 1988년 부평의 일부(19개동)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분구되었다.

28) 이병도, 앞의 논문, 1935, 39쪽.

29) 천관우, 앞의 논문, 1979, 202쪽.

반면 윤용구는 천관우 선생의 소위 몇몇 기점에서 비슷한 발음의 지명을 찾아 ‘점차 남하하였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삼국지』 마한제국은 238년 이후 대방군이 연안해로를 따라 교섭하던

즉 지금의 인천이라 주장하였는데 3세기 미추홀을 근거로 하던 고이왕이 서울지역을 지배한 후 ‘古之辰國 지역 王’이라는 의미에서 ‘辰王’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반면 이병도와 다르게 ‘우휴모탁국’을 춘천지역으로 보았는데, 이는 춘천의 古號인 ‘牛首’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다.

한편 ‘우휴모탁국’과 관련하여 이를 우태-비류계의 흔적으로 보고, 『주서』 이역전 “우태라는 사람이 대방고지에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기록과 관련지어, 구태=우태=우휴모탁국이라는 주장<sup>31)</sup>이었다. 이에 따르면 우휴모탁국은 비류세력의 근거지가 된다. 다만 논자는 ‘미추홀’을 인천지역이 아닌 연천, 파주일대의 임진강 유역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미추홀=인천이라는 그동안의 통설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중국 東方言語學’에서 제공한 고대독음을 활용하여, 마한 50여국을 한자상의 고독음으로 전환한 결과 7번째 ‘우휴모탁국’은 인천 계양구 일대로, 8번째 ‘신분고국’을 인천, 강화중서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2)</sup> 이 중 신분고국의 경우 정시 7년(246)에 발생한 기리영 전투를 이끈 주체로 주목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에 신분고국은 부여계의 고구려 유이민 집단 중 하나인 비류계집단이 정착한 미추홀지역이며, 기리영 전투에서 패한 이후 온조의 백제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sup>33)</sup>

그 밖에도 현 행정구역상 인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9번째 ‘속로불사국’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이병도는 김포 대곶의 古號인 ‘首爾(忽)’, ‘戊

정치집단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윤용구, 앞의 논문, 2019, 21~22쪽). 즉 마한 諸國은 서해 연안 수로 주변에 주로 분포하였다는 것이다.

30) 천관우의 주장에 따르면 『삼국지』의 기록을 근거로 3세기 마한지역에서 광역의 교섭에 가능한 규모의 세력을 가진 집단은 백제국이 유일하며, 따라서 당시 백제의 왕인 고이왕이 ‘古之辰國 지역의 王’이라는 의미에서 ‘辰王’으로 불렸을 것이다. 또한 진왕은 목지국을 다스렸는데, 고이왕은 인천지역을 근거지로 한 비류계 출신이며, 『漢字古音辭典』에 의하면 ‘목지(miuk-tsie)’와 ‘미추(mjie-tsieu)’는 동음이지이다. 단 고이왕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며, 고이왕가 죽자 그의 아들 책계왕은 인천을 버리고, 서울로 ‘葺慰禮城’하여 옮겨 갔다(천관우, 『日支國考』, 『한국사연구』 24, 1979, 171~188쪽 참고).

31)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沸流系의 역할」, 『清溪史學』 16·17, 2002, 505쪽.

32) 박순발,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마한, 백제와 하나되다』, 2013, 126쪽.

33) 차윤환, 「한강 중·하류 유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묘제를 중심으로」, 『고문화』 82, 2013, 52쪽.

(城)’이 ‘東蘆’에 해당하며, 그 인접지역인 김포 월곶의 古號 ‘比史(城)’ ‘別使(派衣)’가 ‘不斯’와 유사한 점을 들어 속로불사를 월곶과 대곶의 합칭이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최근 발굴조사에서 김포지역에 분구묘 및 사주식주거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마한 諸國 중 인천-김포지역과 관련된 곳은 (‘소석색국’, ‘대석색국’),<sup>35)</sup> ‘우휴모탁국’, ‘신분고국’, ‘속로불사국’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최근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인천-김포지역의 분구묘 조성세력과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욱이 당시 한반도에 존재한 정치세력 중에는 『삼국지』 한조에는 열거되지 않았으나, 국명을 가지고 존재하였을 나라가 있을 수 있다.

(나) 정시 7년(246) 봄 2월, 幽州刺史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봄, 濊貊이 모두 토벌되자, 韓那奚 등 수삼국이 각기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다<sup>36)</sup>

(다) 동이 중 마한의 新彌諸國은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떠 삼아 유주에서 4천여 리나 떨어져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귀부해 오지 않은 나라가 20여 개나 되었는데 모두 사절을 보내서 입조해서 공물을 바쳤다.<sup>37)</sup>

(나)는 정시 7년(246)에 있었던 이른바 ‘기리영전투’라는 역사적 사실을

34) 이병도, 앞의 논문, 1935, 40쪽.

35) ‘소석색국’, ‘대석색국’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볼 때 강화도를 포함한 서해 도서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 행정구역상 인천에 해당한다. 또한 강화도 고인돌 등을 통해 볼 때, 이 지역에 청동기시대부터 상당 규모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세력은 본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인천 서구-김포지역의 분구묘 세력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자 한다. 물론 강화도 및 서해 도서지역과 인천 서구-김포지역의 정치세력은 ‘서해’를 함께 공유하는 해상세력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루고자 하겠다.

36) 『三國志』卷4 魏書4 三少帝紀 第4 “正始七年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麗,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37) 『晉書』卷36 列傳 第6 張華傳, “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並遣使朝獻.”

다루고 있다. 기록에는 정시 7년을 기점으로 하여 韓系인 ‘那奚國’ 등 수십국이 중국 군현에 항복했다고 한다. 나해국은 일반적으로 한강 북쪽의 임진강 이북 및 예성강 이남 지역으로 상정된다.<sup>38)</sup>

(다)는 『晉書』 張華傳의 기록으로 3세기 후반 목지국의 위상이 흔들릴 즈음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으로 서진과 교류를 도모하던 나라들이 있었고, 그 중 맹주격인 나라가 ‘新彌國’이었던 것 같다. 신미국은 『삼국지』의 ‘臣雲新國’, 『일본서기』의 ‘枕彌多禮’와 같은 실체로 파악하기도 한다.

‘나해국’, ‘신미국’ 등은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마한 諸國 안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다. 물론 이들 나라는 위치상으로 인천지역과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존재를 통해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나라 외에도 국명을 가진 다양한 정치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천-김포지역에 위치한 정치집단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천-김포지역의 분구묘 조성 정치집단은 과연 『삼국지』 한조의 마한 諸國과 관련지을 수 있을까. 사실 문헌사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지역의 정치집단이 마한 諸國에 속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헌사에서 언급하던 ‘우휴모탁국’, ‘신분고국’, ‘속로불사국’ 등은 인천-김포지역 분구묘 조성세력과 관련지어 볼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들이 마한 諸國에 속하지 않는다면 문헌사에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천-김포지역에 속한 정치집단은 어떤 성격의 정치체였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三國志』의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 部從事 吳林은 樂浪이 본래 韓國을 統括했다고 생각하여 辰韓 八國을 분할하여 樂浪에 (관할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38) 이현해, 「3세기 마한과 백제국」, 『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19쪽; 반면 김수태는 한강유역과 목지국 사이에 위치한 경기남부지역으로 비정한다(김수태, 『漢城 百濟의 성장과 樂浪·帶方郡』, 『백제연구』 39, 2004, 30쪽).

옮기면서 (본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어, 臣智激韓이 모두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 때 [帶方]太守 弓遵과 樂浪太守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遵은 전사하였으나 二郡은 마침내 韓을 滅하였다.<sup>39)</sup>

(라)에 의하면 曹魏 정시 연간인 246년, 부종사 오림이 대방군 관할 아래 있는 진한 12국 중 8국을 떼어 낙랑군에 배속시키려 했는데, 이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통역의 잘못으로 오해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臣漬沽國<sup>40)</sup>이 화가 나서 대방군 기리영(황해도 평산군 일대)을 공격하게 된다. 결국 이 전쟁으로 대방태수는 전사하고, 韓은 멸망에 이르렀다.

기리영 전투는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 대방군의 관할이던 진한 8국을 낙랑국으로 이속한 의도에 주목한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논자에 의하면 당시 조위는 동이경략의 한 방법으로 전담 군현을 두고 이들에게 조공과 互市の 교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물력 조달을 위해 교역권을 중심으로 군현의 교섭범위를 조정하였는데, 군현을 정점으로 하여 왜에 이르는 동이 남부의 교역체계 하에 대방군은 해로로 통하는 교역을 전담하고, 낙랑군은 육상 교통에 의한 교역을 관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로로 접근이 어려운 삼한의 동남부 내륙지방이 낙랑군의 관할로 옮겨지는데, 이들이 바로 진한 8국인 것이다.<sup>41)</sup> 하지만 새로운 교역체제 개편은 마한의 반발을 초래했다. 실제로 당시 전투의 주체는 새롭게 재편된 교역체제에 불만을 품은 마한 諸國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전투가 대방군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전쟁에 참여한 세력은 대방군에 남게 된 4국 또는 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은 세력일 것이다. 그런데 논

39) 『三國志』魏書30 東夷傳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吏譯轉有異同，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遵戰死，二郡遂滅韓”

40) 기리영전투의 공격 주체에 대해 마한 백제국이라는 주장(이현혜,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1997), 또는 목지국이라는 주장(노중국,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1990)이 있으며, 최근에는 『三國志』 판본비교를 통해 마한 제국 중 하나인 臣漬沽國이라는 견해(윤용구,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85, 1999)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41) 윤용구, 앞의 논문, 2019, 21~27쪽.

자에 따르면 낙랑군에 이속되지 않은 나머지 4국은 수로 교통이 가능한 연안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기리영전투에는 연안지역에 분포한 세력이 주로 참여했을 것이다. 이에 서해 연안지역의 중요지점이 될 수 있는 인천-김포지역 정치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리영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에서는 기리영전투의 결과를 ‘二郡遂滅韓’이라 하여, 이를 마한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리영전투에 참여한 인천-김포지역 세력은 마한의 일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더욱이 앞의 논자는 『삼국지』 한전의 50여 마한 제국 역시 대방군과 교섭한 서해 항로에 가까운 연안지역에 주로 분포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즉 『삼국지』 한조에 수록된 諸國에 대한 정보는 238년 이후 일정기간 대방군에서 마한의 여러 세력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수집하였다는 것이다.<sup>42)</sup> 만약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서해 연안에 위치하며, 중국 군현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을 인천-김포지역의 정치집단이 『삼국지』 한전에 열거된 마한 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 4. 인천-김포지역 馬韓 諸國의 특성

지금까지 고고자료 및 문헌사료를 통해 인천-김포지역에 일정 규모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인천-김포지역에서 발견된 분구묘를 통해 이 지역에 일정 규모를 가진 정치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마한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구묘는 한강하류 및 서해연안에서 발견되는 마한계 무덤양식으로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sup>43)</sup> 서울 중심의 단순목관(곽)묘와 계통을 달리한다.

42) 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지역과 역사』 45, 2019, 21~27쪽.

43) 적석묘는 학자들에 따라 무기단식적석총(임영진, 『百濟 漢城時代 古墳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즉석식적석묘(박순발, 『漢城百濟 成立期 諸墓制의 編年 檢討』, 『先史와 古代』 6, 1994), 적석분구묘(이성주, 앞의 논문, 2000) 등으로 부른다. 또한 그 출자에 대해서는 마한계(권오영,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종제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1, 2009)와 예

또한 분구묘는 같은 마한계 분묘양식으로 분류되는 경기남부의 주구토광묘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범마한계 묘제로 매장주위에 주구를 굴착한다는 점에서 자못 유사하다. 하지만 분포, 입지, 주구형태, 매장시설, 출토유물, 공반주거의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매장시설의 축조방식에 있어 전자는 ‘墳丘先行形’으로, 분구를 먼저 만들고 매장시설을 안치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墳丘後行形’ 즉 매장시설을 먼저 안치하고 그 후에 분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44)</sup> 따라서 무덤이 갖는 상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같은 마한계 무덤양식이지만, 각기 문화적 특성이 다른 정치집단에 의해 조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분구묘는 인천 및 서해안 일대에서 발견되는 반면 주구토광묘는 주로 경기남부 및 충청내륙지역에 분포한다.

이 같은 고고학적 연구결과를 기존의 문헌사적 연구성과와 결부시켜 보면, 현재 분구묘가 발견된 지역은 『삼국지』 한조에서 언급된 (6)優休牟涿國·(7)臣瀆沽國·(9)速盧不斯國 등과 관련이 있다. 즉 ‘우휴모탁국’, ‘신분고국’은 인천 계양구 및 인천 서구(강화중서부)지역으로, ‘속로불사국’은 김포시 월곶면-대곶면 일대로 비정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분구묘 밀집지역은 인천 서구 연희동과 김포 양촌-운양동 일대이다. 이에 구체적인 위치비정에 있어 고고자료와 기존의 문헌사적 연구성과 간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더욱이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앞으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구묘의 흔적이 찾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국지』에 기록된 ‘우휴모탁국, 신분고국’은 인천 서구지역, ‘속로불사국’은 김포지역의 분구묘 조성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한에 소속된 諸國들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읍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일정한 지역을 배타적 생활권으로 하여 각각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읍락은 국읍이다.

계(박순발, 『漢城百濟 成立期 諸墓制의 編年 檢討』, 『先史와 古代』 6, 1994)로 대별된다.

44) 김승욱, 『금강유역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취락의 전개과정연구』, 『한국고고학보』 65, 2007.

즉 중심 읍락인 국읍이 주변의 여러 작은 읍락을 통합하여 만든 정치체가 ‘國’인 것이다. 그렇다면 분구묘가 가장 많이 발견된 연희동 유적은 ‘우휴모탁국’ 혹은 ‘신분고국’의 국읍에 해당할 것이다.<sup>45)</sup> 그리고 ‘속로불사국’의 국읍은 출토 유물 및 그 중심연대를 고려해 볼 때, 김포 운양동에서 양촌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마한에 속하며, 분구묘와 시주식주거지를 조성하며 살던 인천-김포지역의 諸國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이 속한 마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한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중서남부 지역에 해당<sup>46)</sup>하며, 성립시기는 기원전 3~2세기 경,<sup>47)</sup> 소멸시기는 기원후 4세기 중엽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사실 그동안 마한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마한은 학자에 따라 부족국가, 성읍국가, 군장사회 등으로 불리면서 그 형성시기 및 성격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70년대 이후 인류학 등 인접 학문의 이론이 도입되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고대 국가형성론에 대한 여러 논란과 맞물려 마한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중 특히 주목할 점은 마한이라는 사회가 수장을 중심으로 한 諸國의 정치적 연합체로, 이들 각각의 정치세력은 다른 정치세력과 느슨한 연맹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諸國들 사이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독자성을 강하게 유지하게 된다.<sup>48)</sup> 즉 마한의 중심에는 목지국이 있지만 그 외의 諸國도 나름의 세력을

45)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휴모탁국’과 ‘신분고국’ 중 어느 나라가 연희동 유적에 해당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병도에 의하면 고구려의 ‘주부토군’이 부평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1988년 부평의 일부가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 편제되었기에 ‘우휴모탁국’과 연희동유적의 관련성이 좀 더 커 보인다. 하지만 음상사를 통한 위치비정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후속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46) 기록에 의하면 “韓在帶方之南，東西以海爲限，南與倭接，方可四千里(『三國志』魏書30 東夷傳)”라고 하였다.

47) 마한 제국의 성립시기는 조선 준왕의 南走시기(이병도, 앞의 논문, 1935, 95~99쪽), 위만조선의 멸망시기(천관우,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76, 35~39쪽) 또는 기원전 3~2세기이래 형성되었거나(김원룡,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 『東亞文化』 7, 1967, 32쪽), 혹은 다양한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파상적으로 성립되었다(이현혜, 『馬韓 小國의 形成에 대하여』, 『역사학보』 92, 1981, 26쪽)는 등의 주장이 있다.

형성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김포지역이 마한 중심지인 충청 이남지역과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마한 내에는 크고 작은 지역연맹체가 존재할 수 있다. 지역연맹체는 큰 연맹체 내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나라들이 형성한 작은 연맹체를 말하는데, 주로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다. 『삼국지』 『韓那奚等數十國』(『三國志』卷4 魏書4 三少帝紀 第4), “新彌諸國等……二十餘國”(『晉書』卷36 列傳 第6 張華傳) 등이 대표적이며, 온조의 십제국과 비류의 미추홀국도 일정 기간 지역연맹체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건국전승에서 온조와 비류를 형제관계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른바 분구묘가 조성된 인천-김포지역은 “해상”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지역연맹체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인천-김포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경기만에 위치한다. 경기만은 한반도 북부를 통해 내려오는 길과 중국 강남에서 들어오는 길,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길, 한반도 남부동안에서 오는 길, 일본열도에서 오는 모든 물길이 상호교차하여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지점이자, 한강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막론한 해양 교통의 길목인 셈이다.<sup>51)</sup>

48) 이현혜는 소국연맹단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국연맹단체는 소속되어 있는 ‘~國’들은 개별적인 정치체로서 독자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맹주국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맹체 결성 계기나 운영기반도 물리적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상호 작용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며, 소국연맹체의 구성원들도 매우 유동적이다. 소국연맹체의 구성원들은 교통로를 공유하고, 물자나 기술을 대등한 수준에서 서로 교류하며, 군사행동이나 원거리교역 수행도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한다. 아무리 맹주국이라고 해도 이권을 독점하거나 인적, 물적 자원을 강압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에 소국연맹체 단계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특정 ‘國’에 집중되거나 또는 諸國 간의 세력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국 간에 무력 대결이 있더라도 소국 이름이 사라지거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현혜, 『百濟 古爾王代 聯盟國說 檢討』, 『百濟研究』 58, 2013, 58쪽).

49) 노중국, 『백제정치사』, 2018, 81~83쪽.

50) 윤명철은 해양세력이 발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든든한 배후지와 자립할 수 있는 경작공간, 둘째, 해상로를 통제할 수 있는 물목을 장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부세력 혹은 중앙정부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좋은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윤명철,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 연구-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260쪽).

더욱이 서해안은 물길이 매우 복잡하여 현지 해양민이 아니면 해로의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즉 원활하고 안정성 있는 항해를 위해서는 물길의 숙지와 장악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능력은 그 지역 사정에 익숙한 사람만이 가능하다.<sup>52)</sup> 따라서 이 지역에 해상로를 장악한 해상도착세력의 성장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인천-김포지역의 분구묘 조성 정치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구묘가 가장 많이 발견된 ‘연회동유적’은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제되어 있는데, 지금은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명 ‘용의 머리’<sup>53)</sup>로 불리는 바다를 향해 반도처럼 뻗어져 나간 곳이 있었다. 아마도 매립 전까지 이곳을 통해 주변 지역과 경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 나갔을 것이다.

또한 김포시 운양동과 양촌리는 한강에 인접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농경생활을 해오던 지역이다.<sup>54)</sup> 즉 김포반도는 한강의 홍수로 인해 퇴적층이 만들어 낸 비옥한 평야지대이고, 풍부한 한강의 수자원 이용이 가능하여 그야말로 벼농사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sup>55)</sup> 또한 이 지역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흘러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서해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출입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이에 오래전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다만 김포반도 북부와 강화도 사이의 해협(일명 손돌목)은 물길 사이가 좁고 물살이 매우 빨라 지금까지도 항해의 어려움이 제기되는 곳이다. 이에 김포지역의 정치체들은 중국군현과의 교류에 있어 주변 지역, 이를테면 해상활동이 용이한 연회동 세력과 함께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1) 윤명철, 『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고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7, 2013, 17, 26쪽.

52) 윤명철, 『渤海의 海洋活動과 동아시아의 秩序 再編』, 『발해건국 1300주년』, 1998, 509쪽.

53) 연회동 본말에서 뻗어간 땅의 모습이 용과 같고, 바다에 이른 마치 용의 머리 같은 곳에 취락이 있어 ‘용의 머리’로 불렸다고 한다(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99~100쪽).

54)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이탄층에서 나온 벼의 연대측정결과가 4,020±25yrBP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쌀문화의 기원보다 1000~1500년 정도 앞선 결과이다.

55) 김포시사편찬위원회, 『金浦市史』, 김포시, 2011, 112쪽.

이렇듯 분구묘 집중 발견 지역은 육지와 강과 해양이 연결된 접점지역으로 물자의 공급지와 수요지, 그리고 집결지를 연결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곳에 자리 잡은 정치세력은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주변 정치세력 및 외국과 교섭하고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을 것이다.

최근 연구성과에 따르면 낙랑군 설치를 계기로 낙랑, 중국계 유물이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따라 유입되는데, 특히 강 하류 및 도서지역에 낙랑, 중국계 유물이 발견될 경우, 그 지역 정치체는 해상 교류네트워크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sup>56)</sup>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인천-김포지역은 중국군현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일찍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한반도 전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해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계 토기편 등 낙랑계 유물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더욱이 인천 연회동, 김포 양촌, 운양동 등에 다수의 낙랑계 백색토기 발견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산동에서 직접 전래 된 유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sup>57)</sup> 이는 인천-김포지역 정치세력이 낙랑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즉 인천-김포지역에는 해상교류를 통해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성장하였을 것이다.

한편 인천-김포지역의 분구묘 축조 세력은 해상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상호간의 강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 세력, 특히 해상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에는 일정한 군사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쉽게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신라 하대 해안이나 강의 포구에 웅거하여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독립세력으로 성장한 신라 하대의 해상호족<sup>58)</sup>이 좋은 예이다. 당시 호족들

56) 고일홍, 「고대 한반도 해상교류의 새로운 이해」, 『인문논총』 75-2, 2018, 173쪽.

57) 차윤환, 앞의 논문, 2013, 48쪽.

58) 당시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어 항, 포구가 발달하였고, 배후에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왕래가 편리하여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력 확보가 용이하였다. 또한 반신라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수도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당시 서해안에는 많은 호족들

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군사력, 즉 사병을 중심으로 무장선단을 꾸려 자체방어를 하며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이들의 해상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해적을 꼽을 수 있다. 해적은 해상이나 해안을 대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던 집단으로 인류가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계급사회를 운용하기 시작한 이래 늘 존재해 왔다고 한다.<sup>59)</sup> 이를 볼 때, 원활한 해상교류를 위한 군사적 동맹은 반드시 필요하였으리라 본다.

특히 분구묘가 가장 대규모로 발견된 연희동에는 조선 말, 외적이 서해로부터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연희진’이 설치된 바 있다. 당시 서해에서 도성에 이르는 길은 강화수로를 이용하는 것과 해안에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길이 있는데, 강화수로는 손돌목 등의 험로를 지나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에 조선에서는 연희동, 즉 ‘용두머리’ 부근에 상륙하여 육로로 최단기간 안전하게 서울에 입성하는 방법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조선의 사정을 일본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의 침입을 우려한 고종이 그 길목인 연희동에 연희진 및 용두포대 등을 설치한 것이다. 물론 연희진은 설치 3년만에 혁파되었다,<sup>60)</sup>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 연희동 지역을 ‘保障重地’로서 생각하였고, 이는 古代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즉 서해 연안에 위치하며, 대외무역에 종사하고자 한 세력이라면 군사적 요충지인 연희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으리라 본다.

더욱이 김포 운양동 유적에는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계토기편 등 낙랑계 유물과 함께 철제무기류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군사적 무장과 체계화된 군사조직을 갖춘 마한 소국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sup>61)</sup> 즉

이 자리잡고 있었다(권덕영,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호족』,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311~312쪽).

59) 권덕영,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호족』,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302쪽, 320~323쪽.

60) 연희진은 인천, 부평지역의 방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1879년 고종의 명에 따라 화도진과 함께 설치되었다. 하지만 1880년 인천의 개항이 결정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쓸모없게 되자, 1882년 혁파된다(서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37~342쪽).

61) 김길식,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

이들 정치체는 중국 군현과의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도, 유사시에는 군사적으로 대립하였음을 의미한다.<sup>62)</sup>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로 앞서 살펴본 기리영 전투가 주목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전쟁은 교역체계의 재편에 있어 가장 피해를 입은 세력이 공격의 중심에 섰을 것이다. 즉 이들은 바로 대중 교섭의 통로에 해당하는 중부지역 세력들<sup>63)</sup>로, 당시 대방군과의 교섭이 활발한 인천-김포지역 세력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sup>64)</sup>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인천-김포지역은 군사적으로 이어진 강력한 지역연맹체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군현과의 경제적 교섭은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함께 행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국지』에서 국명을 열거할 때, 나란히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65)</sup>

기리영전투를 계기로 백제는 마한의 일개 소국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조에 의하면 “8월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태수 유무와 삭방태수 왕준이 고구려를 치므로, 왕이 그 틈을 타서 좌장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민을 쳐 빼앗았다. (유)무가 듣고 노하니 와이 침범할까 두려워 민구를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기리영사건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기리영전투에서 백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韓(또는 신분고국)이 멸망에 이를 정도로 그 세력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이를 기회로 백제가 마한의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수 있다. 고이왕대에 보이는 일련의 개혁들은 당시 백제가 고대국가로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상징적으

무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50, 2014, 139쪽.

62) 차윤환, 앞의 논문, 2011, 85쪽.

63) 정재운, 『魏의 對韓政策과 기리영전투』, 『중원문화논총』 5, 2001, 43쪽.

64) 주로 고고학계에서 신분고국을 인천-강화지역으로 비정한다. 김길식은 이 지역에 다원적 철제무기들이 집중 발견되며, 한강유역에서 이러한 철제무기를 집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춘 집단은 마한 54국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신분고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김길식, 앞의 논문, 2014, 166쪽); 한편 차윤환도 신분고국은 부여계의 고구려 유이민 집단 중 하나인 비류계집단이 정착한 미추홀지역이며, 기리영전투에서 패한 이후 온조의 백제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차윤환, 앞의 논문, 2013, 53쪽).

65) 『삼국지』에 기록된 나머지 마한 제국들도 ‘지역연맹체’를 중심으로 기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이왕이 이보다 앞서 “西海大島”에서 한 차례 전렵을 행하였다는 사실이다. 고대사회에서 전렵은 단순한 사냥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서해대도는 방향상 볼 때, 인천 도서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당시 고이왕이 기리영전투로 약해진 인천지역의 정치세력을 포섭하여 백제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즈음하여 인천의 정치세력은 마한연맹체에서 이탈하여 백제와 굳건한 연맹관계를 이루게 되고,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3세기 후반 이후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의 수량 및 규모가 줄어든 것은 마한의 지역연맹체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백제 건국전승에서 비류가 온조와 형제관계로 나오는데, 이는 새롭게 백제와 연맹관계를 맺게 되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sup>66)</sup>

## 5. 마무리

최근 인천-김포지역에서 마한의 대표 묘제로 알려진 분구묘가 다수 발견되었다. 분구묘의 출현은 이 지역에 일정 규모의 세력을 가진 지배 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분구묘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역은 인천 연희동 유적, 김포 운양동, 양촌 유적 등이다. 여기서는 분구묘가 대규모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위계에 따른 입지의 조성 및 그에 따른 유물이 확인된다. 이는 이 지역에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토유물을 토대로 본 중심연대가 대략 3세기 전후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삼국지』 한조에 등장하는 마한 諸國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 한조에는 56개의 소국이 등장하는데, 문헌사적 연구성과에 따른

66) 『삼국사기』에는 비류가 온조의 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비류세력의 힘이 온조에 능가하거나 혹은 맞먹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국신화는 왕조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이다. 비류가 온조의 형이 된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면 인천-김포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휴모탁국’, ‘신분고국’ 및 ‘속로 불사국’ 등이다. 이들은 서해 연안지역에 위치한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 중국 군현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을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46년 조위의 동위 남부 교섭체제의 개편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기리영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마한연맹체에 속하며, 분구묘(사주식주거지 포함)를 조성하던 인천-김포지역의 정치세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해상”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마한의 지역연맹체이다. 인천-김포지역은 서해안의 모든 물길이 상호교차하여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지점이자, 한강과도 연결되는 해양 교통의 길목이다. 즉 분구묘가 집중 발견된 인천 연화동 및 김포 운양동, 양촌 등지는 육지와 강과 해양이 연결된 접점지역으로 물자의 공급지와 수요지, 그리고 집결지를 연결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곳의 자리 잡은 정치세력은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주변 정치세력 및 외국과 교섭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인천-김포지역의 정치체는 해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동시에 강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희동지역은 일명 ‘保障重地’로서 외부세력이 한반도 내륙에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는 그야말로 군사적 요충지이다. 이에 서해 연안에 위치하며, 대외무역에 종사하고자 한 세력이라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포 운양동 유적에는 오수진, 칠경동축, 낙랑계토기편 등 낙랑계유물뿐 아니라 상당수의 철제무기류도 발견된다. 이는 이 지역 세력이 중국군현과 교류 또는 분쟁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인천-김포지역은 군사적 동맹으로 맺어진 지역연맹체로 중국군현과의 경제적 교섭은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함께 행동하였고, 이 때문에 『삼국지』에서 국명을 열거할 때, 나란히 기재된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려문화재연구원, 『김포 양촌 유적』, 2013.
- 고일홍, 「고대 한반도 해상교류의 새로운 이해」, 『인문논총』 75-2, 2018.
- 권덕영,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호족」,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 권오영,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2009.
- 김기섭, 「백제의 국가성장과 沸流系의 역할」, 『滿溪史學』 16·17, 2002.
- 김기욱, 「한강 하류역 마한 분묘군 일고찰」, 『경남연구』 7, 2012.
- \_\_\_\_\_,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마한 분구묘 비교 검토』, 2015.
- 김길식,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50, 2014.
- 김수태, 「漢城 百濟의 성장과 樂浪·帶方郡」, 『백제연구』 39, 2004.
- 김승옥, 「금강유역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취락의 전개과정연구」, 『한국고고학보』 65, 2007.
- \_\_\_\_\_, 「중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 2011.
- 김원룡,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 『東亞文化』 7, 1967.
- 김정배,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問題」, 『한국사연구』 4, 1976.
- \_\_\_\_\_, 「目支國小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 김포시사편찬위원회, 『金浦市史』, 김포시, 2011.
- 노중국,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1990.
- \_\_\_\_\_, 『백제정치사』, 2018.
- 박순발, 「漢城百濟 成初期 諸墓制의 編年 檢討」, 『先史와 古代』 6, 1994.
- \_\_\_\_\_,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마한, 백제와 하나되다』, 2013.
- 서경문화재연구원, 『인천 연희동 유적』, 2013.
-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 신은정, 「原三國~漢城百濟期 京畿地域 四柱式住居地 研究」,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윤명철, 「渤海의 海洋活動과 동아시아의 秩序 再編」, 『발해건국 1300주년』, 1998.
- \_\_\_\_\_,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 연구 - 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8·59, 1999.
- \_\_\_\_\_, 「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7, 2013.
- 윤용구,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85, 1999.
- \_\_\_\_\_, 「馬韓諸國의 位置再論」, 『지역과 역사』 45, 2019.
- 이병도,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진단학보』 3, 1935.
- \_\_\_\_\_, 「目支國의 위치와 그 地理」, 『한국고대사연구』, 1976.
- 이상주, 「墳丘墓의 認識」, 『한국상고사학보』 32, 2000.
- 이현혜, 「馬韓 小國의 形成에 대하여」, 『역사학보』 92, 1981.
- \_\_\_\_\_, 「3세기 馬韓과 伯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1997.
- \_\_\_\_\_, 「百濟 古爾王代 聯盟王國說 檢討」, 『百濟研究』 58, 2013.
- 임영진, 「百濟 漢城時代 古墳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마한 분구묘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마한 분구묘 비교 연구』, 2015.

- 정재윤, 『魏의 對韓政策과 기리영전투』, 『중원문화논총』 5, 2001.
- 지 혜, 『김포, 인천지역 마한 분구묘의 시공간적 특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차윤환, 『原三國後期~百濟初期 漢江 中, 下流域의 墓制와 地域集團 研究』,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_\_\_\_\_, 『한강 중·하류 유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묘제를 중심으로』, 『고문화』 82, 2013.
- 천관우,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76.
- \_\_\_\_\_,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79.
- \_\_\_\_\_, 『日支國考』, 『한국사연구』 24, 1979.
- 한강문화재연구원, 『김포 운양동유적』, 2013.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동양동유적』, 2007.

## Inchon-Gimpo Region Bungu-tomb(墳丘墓) and Mahan(馬韓)

Kim Kyoung hwa\*

Recently, a fairly large number of Bungu-tombs(墳丘墓) were discovered in the Incheon-Gimpo area. This means that a ruling group with a certain size of power has emerged in this region. Areas where Bungu-tombs have been found particularly intensively are the remains of Yeonhui-dong in Incheon and Unyang-dong, Yangchon. in Gimpo. Considering that the central age seen based on the excavated relics is around the first half of the 3rd century,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y are one of the Mahan countries appearing in the Hanjo(韓條)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There are 56 small kingdoms in Hanjo(韓條)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search results, the countries that fall under the Incheon-Gimpo region are ‘Woohyumotakguk(優休牟涿國)’, ‘Sinbungoguk(臣濱沽國)’, ‘Soklobulsaguk(速盧不斯國)’. As a member of the Mahan Federation, they would have grown into a maritime power through economic exchanges with Chinese Gunhyeon(郡縣).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he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Giriyeong with Chinese Gunhyeon in the 3rd century.

The political forces in the Incheon-Gimpo reg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al federation of Mahan formed by economic and military necessity through “sea” as a medium. In particular, the Yeonhui-dong area is a strategic

---

\* Inha-university lecturer

military base located on the way to the inland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f it is a power on the West Sea coast to engage in foreign trad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has formed an economic and military alliance with this region.

On the other hand, a significant number of iron weapons and relics of Nakrang, such as Osujeon(五銖錢), Cheolgyeongdongchok(鐵莖銅鍬), and Nakranggye earthenware(樂浪系土器片), are found at the Unyang-dong ruins in Gimpo.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local powers participated in conflicts such as the Battle of Giriyeong. In other words, the Incheon-Gimpo region is a regional alliance formed by a military alliance, and it acted together when conflicts occurred as well as economic negotiations with Chinese Gunhyeon(郡縣)

**Key words:** Incheon-Gimpo Region, the Bungu-tomb(墳丘墓), Mahan(馬韓), 『Three Kingdoms(三國志)』 Hanjo(韓條)